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
		배포일자	2023년 3월 30일(목) 총 3매	
담당 부서	총무과	담 당 자	• 인천사랑팀장 전미경 ☎440-2401 • 담당자 이철수 ☎440-2405	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상반기 중 고향사랑기금 설치... 고향사랑기부 활성화

- 고향사랑기금 설치, 기부금 모집 및 주민 복리증진 사업 발굴·추진 -
- 중소기업 제품 등 대표 답례품 추가 발굴,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금 설치 등 역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.

저출산·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‘고향사랑기부제’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다.

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인천시(군·구 포함)에는 총 570여 건, 5,3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접수됐다.

이와 관련해 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관심과 인지도를 높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.

먼저, 인천시로 접수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올 상반기 중 ‘인천시 고향사랑기금’을 설치할 계획이다.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·운용 및 각종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이에 따라 시는 올해 기금을 설치하고, 내년에 추진할 기금사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. 이를 위해 시는 기금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용, 효과적인 기금사업의 발굴을 위해 회계, 사회복지, 문화,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‘인천시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’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. 시는 2027년까지 총 3억 5천만 원의 기금 적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다음으로, 인천시 대표 답례품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. 시는 지난해 말 ▲강화섬쌀, ▲홍삼절편, ▲까나리액젓, ▲수제인삼청, ▲시티투어상품권, ▲인천투어패스상품권, ▲웰니스관광상품권, ▲어촌체험휴양마을상품권, ▲인천사랑상품권 등 총 9종의 대표 답례품을 발굴한 바 있다. 시는 기존 답례품 외에 다양한 제품·서비스 상품을 추가 발굴해 기부자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한편,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답례품을 추가 발굴해 제공할 예정이다. 특히, 관내 중소기업, 소상공인 공급제품 중 답례품으로 선보일 수 있는 제품을 적극 발굴해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실현에 보탬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.

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강화한다.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온·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노출 빈도를 늘려 제도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. 또, 서울시, 경기도 등 인근 시·도와 상호 협력

해 통근·통학 등 인천과 연고가 있는 수도권 거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제2의 고향으로서의 인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.

또, 상반기 중으로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‘고향사랑 기부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’을 개최할 계획이다. 이를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천만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, 고향사랑기부제 및 인천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높인다는 구상이다. 공모전은 ▲홍보방안, ▲대표 답례품, ▲기금사업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아이디어를 접수하고, 접수된 아이디어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검토 및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입상작을 선정한다. 입상작에는 소정의 부상을 제공하고, 향후 추진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인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효과성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“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만큼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제도의 활성화와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”며, “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널리 알리고, 시민 수요를 고려한 대표 답례품 및 기금사업을 발굴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